

10년간 '안방' 순천 내준 민주당...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與 '전략공천' 소병철, 무소속 노관규와 박빙 승부

"쪼개기 선거구 · 전략공천...민주당, 승리 장담 못해"

제21대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관규 무소속 후보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순천은 2011년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당선된 이후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4번 연속 민주당 후보가 고배를 마신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도 '안방 탈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일 발표된 KBS광주방송총국 여론조사에서 노관규 무소속 후보가 소병철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지지율은

노관규 후보 41.1%, 소병철 후보 35.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당선 가능성은 소병철 39.4%, 노관규 31.9%로 나타났고, 계속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관규 지지자의 34.2%, 소병철 지지자의 28.5%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63.4%, 정의당 7.1%, 미래통합당 4.1%, 민중당 3.8%, 국민의당 2.8%로 나타났다.

그동안 순천에서 뽑힌 국회의원을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의 서갑원 후보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08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1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아편연대 단일후보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당선되며 민주당은 안방을 내줘야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국회 최후단 사건의 여파로 중도하차 했으나 민지리는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차지가 됐다.

2년 후 20대 총선에서도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비상했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무소속)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을 거치며 힘을 잃었고 급기야 지난해 12월 순천 출마를 포기했다.

갑자기 현역 의원이 사라지며 무주공산이 된 순천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는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급변했다.

특히 선거구 분구를 위한 인구 기준을 넘기며 민주당은 2개의 선거구를 모두 차지할 기세에 부풀었다.

하지만 기형적인 '쪼개기 선거구' 확정으로 순천은 사실상 단일 선거구로 주저앉았고,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을 전략공천하며 불붙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총선을 준비하던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지지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특히 노관규 예비후보는 자신의 지지세와 반발하는 시민정서를 놓고 장고하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순천갑 선거구는 여전히 쪼개기 선거구 확정과 전략공천이란 선거 이슈가 불타는 지역"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듯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막바지 선거판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소병철 민주당 후보, 천하람 미래통합당 후보, 기도서 민생당 후보, 강병택 정의당 후보, 정동호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이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병철, 천하람, 기도서, 강병택, 노관규, 이정봉, 정동호, 김선동 후보.

정봉 기독교자유통일당 후보, 노관규 무소속 후보 등 모두 8명이 총선 표밭을 누리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15.2%·RDD표본추출)와 무선전화(84.8%·통신사제공 무작위 추출)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2월말 행정

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전체응답률 2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영범 기자

"잘 부탁드립니다" 광주 서구를 후보들 민심잡기 '총력'



좌측부터 양항자 후보, 유중춘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지역 후보들이 주일을 맞아 민심잡기에 나섰다. 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윤천저수지에는 운동을 하는 시민 등의 발길이 이어졌다.

따사한 햇볕과 함께 벚꽃이 흐수아 함께 어우러지면서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길을 잠시 멈추고 벤치에 앉아 풍경을 구경하기도 했다.

오전 9시10분쯤 노란색 옷을 입은 유중춘 정의당 광주 서구를 후보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시민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의식한 듯 유 후보의 인사에 목례로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시민은 악수를 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만나는 시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겠다"고 호소했다.

이후 유 후보는 오전 9시50분부터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유세차량에 탑승, 차를 타고 이동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유 후보는 유세차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에 맞춰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오전 10시에는 양항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풍암저수지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양 후보는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는 명함과 함께 인사를 건넸다.

시민들은 양 후보임을 알아보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하기도 했고, 일부 여성 후보들은 안아주면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문재인 품은' 민주당vs'이낙연 앞세운' 민생당...호남권 승자는

4·15 총선이 본격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이 호남에서 치열한 텃밭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힘입어 4년전 민생당(당시 국민의당)에 빼앗긴 호남패권을 되찾겠다고 버리고 있다. 이에 맞서 민생당은 차기 대권주자로 급상승 중인 이낙연 전 총리를 활용한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권력의 파워게임이 시작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초반이지만 현재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질주하며 광주·전남 18석 전 지역구 석권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는 지역 여론에 편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에서도 '문재인정부'에 기여한 경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는 등 현 정부지지 후광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본 선거에서도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각종 경력사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반면 광주 7곳과 전남 6곳에 후보를 내며 민주당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생당은 호남 출신의 여당 대권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지지율 만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광주 광산갑 김동철 민생당 후보가 선거 사무실 외벽 현수막에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한 사진과 함께 '뉴 DJ시대 개막', '50 18석 전 지역구 석권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또한 7선에 도전하는 광주 서구를 천정배 민생당 후보도 외부 현수막과 후보자 홍보물을 통해

'호남 대통령'을 내세우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민을 '뺄뺄' 지지한다면 호남 대권주자는 '뺄뺄' 당하고 말 것"이라며 "천정배를 선택해 민주당과 경쟁을 계속하게 해준다면 민주당은 호남 민심을 계속 얻기 위해 호남 출신 대권 주자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에서 5선에 나서는 민생당 박지원 후보도 이번 총선에서 '전남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해 현재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지칭했다.

'이낙연 마케팅'에 대해 민주당은 "타당의 후보, 그것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사진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의적인 꼼수"라며 "민생당은 민주당 기생정당이다"고 비난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논란이 일수록 오히려 민생당의 '이낙연 마케팅'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